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3관왕 ... 금3·은2



13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손연재가 리본, 후프, 볼, 곤봉(왼쪽부터) 연기를 펼치고 있다. 손연재는 지난 12일 치른 개인종합결선에서 금메달을, 이날 후프, 볼 부문에서 금메달을, 곤봉과 리본 부문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

野신당 44.2% 새정치 29.5%

전남 유권자 1만1000명 조사...야권 지각변동 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새정치 민주연합보다 야권 신당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은 물론 야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이 지난 10~12일 사흘 동안 전남지역 유권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11곳에서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야권 신당에 비해 높은 곳은 나주시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3.09%p) 내인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야권 신당 지지율은 44.2%,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9.5%, 새누리당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7%로 나타났다.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 22.1%,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17.2%, 손학규 전 대표 13.0%, 안철수 전 대표 9.2% 순으로 집계됐다. 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6%의 '깜짝'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김부성 한나라당 대표가 7.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달 초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10곳에서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아직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광주 민심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남과 전북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이 같은 흐름은 새정치연합의 내분 상황과 맞물려 야권 신당의 출범에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여전히 중앙위원회 의결은 아직 장담하기 힘들다. /임동욱기자 tuim@

세계에 빛난 光州...시민·선수 모두의 승리



광주U대회 오늘 폐막...대한민국 사상 첫 종합우승
메르스 약재 뚫고 시·도민 참여로 성공대회 이끌어

‘시민과 선수 모두가 승자였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 뜨거웠던 열전의 막을 내린다.

〈관련기사 2·3·4·5면〉

광주 U대회는 지난 3일부터 143개국 1만2885명(선수 8272명·임원 4065명·심판 548명)의 지구촌 젊은이들이 참가해 열정과 환희, 축제의 흥겨움을 나누면서 ‘광주의 빛’을 ‘세계의 빛’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대회로 자리매

김했다.

이번 광주 U대회는 개막을 앞두고 터진 메르스 확산, 북한 불참 등의 약재와 대풍 찬홈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150만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안전하고 품격 높게 대회를 치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한 초대형 국제행사를 진절과 배려, 문화와 축제를 바탕으로 매끄럽게 진행해 국제스포츠도시 영향력이 24위로 상승하는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U대회 성공은 한국 현

대사 중심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나눔과 연대, 희생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기 노력해온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꼽을 수 있다.

윤장현 조직위원장(광주시장)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메르스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여러 상황이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소홀함, 부족함이 없었는지 염려도 든다”면서 “무엇보다 대회기간 중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배려의 정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금메달 2개를 추가해 금메달 47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29개로 종합순위 1위를 확정지었다. 금메달 34개인 러시아(2위)와 중국(3위)과는 13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연재는 이날 후프와 볼에서 금메달을 추가, 3관왕에 오르며 광주U대회 최고 히로인이 됐다. 한국은 또 태권도 남자 단체 겨루기 결선에서 중국을 9-8로 꺾고

■ 광주U대회 메달 순위 (13일 20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대한민국	47	31	29
2	러시아	34	39	49
3	중국	34	22	16
4	일본	25	25	35
5	미국	19	15	18
6	프랑스	13	9	8
7	이탈리아	10	14	17
8	우크라이나	8	17	6
9	이란	7	2	6
10	대만	6	12	18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14일 오후 7시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폐회식에는 정부 대표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정치권에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단=최권일·박정욱기자 cki@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좋아 U 광주”
외국인 선수단 20명 소감 ▶ 3면
열정의 순간들 화보 ▶ 18면

보성 득량중·함평골프고 출신 전인지 US 여자오픈 우승

한·미·일 메이저대회 석권

보성 득량중·함평골프고를 나온 전인지(21)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20면〉

이로써 전인지는 국내대회 세차례 우승과 일본 메이저대회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스컵에 이어 미국 US여자오픈을 석권, 한 시즌 ‘삼국통일’에 성공했다.

전인지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컨트리클럽(파70·6289야드)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양희영(26)을 1타차로 제치고 처음 출전한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4회 2015
청소년축제
The 4th Youth Festival

2015. 8. 1 SAT 10:00~20:00 상무지구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행사장 일대

경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각 기관장상 수여

모집분야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학교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대상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7월 21일까지(영상, 포스터 부문), 7월 28일까지(공연, 농구대회 부문)

문의전화 062.220.0555 / 010.5156.5596

참가신청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주최 |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No Bullying, Yes Bling!